

임진각, 야간관광 명소로 변신 '3일 개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20.12.03 08:08 수정 : 2020.12.03 08:08

주변 환경과 경관조명, 인공 구조물 활용 미디어아트 조성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우리나라 대표 안보 관광지인 임진각이 야간 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파주 임진각관광지 내 수풀누리에 총 19억원을 투입해 인공 조형물과 미디어쇼가 가능한 조명 장치 등으로 구성된 야간관광 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임진각과 평화누리로 치중되는 관광객의 유입을 수풀누리로 분산시키고, 야간에도 임진각과 DMZ(비무장지대)의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야간관광 시설을 조성했다.

새롭게 문을 연 임진각 야간관광 시설은 5만2884㎡(1만6000평) 부지 내 동선을 따라 재미있는 조형물과 레이저 아트를 이용해 풍부한 볼거리를 마련했다.

북에서 날아온 꽃씨가 무궁화와 함박꽃을 피워내고 꽃잎을 흩날리며 평화의 메시지를 퍼뜨린다는 스토리텔링과, 구역별로 이야기에 맞는 연출을 통해 관광객의 흥미를 유도한다.

실제 민들레 홀씨가 커진 것 같은 조명과 꽃씨 오브제 조명으로 꽃씨가 흩날리듯 초입 부분을 연출했으며, 사람이 다가가면 저절로 활짝 피는 꽃 조형물 작품과 바람에 떠다니는 꽃씨처럼 움직이는 레이저가 메인콘텐츠인 하나그루로 이동하는 코스에서 몽환적인 분위기를 유도한다.

가장 큰 볼거리는 13m의 초대형 나무 조형물인 '하나그루'가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

며 야간에 펼쳐지는 환상적인 미디어 쇼다.

'하나그루'에서는 회당 15분의 주요 영상과 계절별 영상이 송출된다.

주요 영상은 희망의 꽃씨가 모여 하나의 나무가 되는 감동적인 연출로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주요 영상쇼 전후에는 크리스마스(동절기) 등 각 계절에 맞는 영상을 송출해 포토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수변공간에 고강도레이저를 이용해 빛의 파장이 물결처럼 잔잔하게 퍼지는 신비한 느낌을 표현했고, 움직이는 레이저로 하나그루에서 흩날려 내려온 꽃가루를 표현해 걷는 내내 환상적인 느낌을 준다.

야간관광 시설은 임진각 평화누리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경기관광공사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시범 운영된다.

시범운영 중 하나그루 미디어쇼는 주 3일(목~토, 일 3시간), 경관조명은 연중무휴(일 4시간)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관람객이 사전에 보내준 영상을 하나그루 이벤트 영상으로 활용해 고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도는 이를 통해 지난 10월 21일 개장해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누리성 탐험대(모험놀이시설)'와 더불어 인근의 평화누리, 캠핑장과 함께 평화관광의 중심지이자 경기 북부 체류관광의 거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용훈 도 관광과장은 "시범운영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충분히 완화된 시기에 임진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평화 판타지'라는 새로운 장르의 콘텐츠를 수풀누리에서 선보일 것"이라며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염원을 담은 '하나그루'처럼 남녀노소 하나가 되어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취소